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휘영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전자 it 융합 전공
파견 학기	2022-1, 2022-2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에나응용과학대 (Ernst-Abbe-Hochschule Jena)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중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외국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호주로 대학교를 진학했던 친구의 말을 들으며 더 커지게 되었고, 저는 이를 실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만 믿고 무작정 교환학생을 신청하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교내 '국제교류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어울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총 2명의 외국인 친구를 배정받아 도와주었는데 그 중 에나응용과학대(이하 EAH Jena)에서 온 'Frederike'라는 독일인 친구는 저와 같은 수업을 들었기에 얘기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한정적이었던 'EAH Jena'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국제교류원 홈페이지의 체험수기도 참고함)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견교 홈페이지에서 개설 강좌 목록을 미리 볼 수 있었고, 제 전공과 상당히 비슷한 과목이 많다고 생각하여 최종적으로 'EAH Jena'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 준비, 비자 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해당 내용을 기술하기 전, 저는 코로나 상황이었던 2022년에 파견되었기에 현재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참고만 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파견교에 이메일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교환학생 합격 발표일은 2021년 10월 중순쯤이었고, 'EAH Jena'의 개강은 2022년 4월이었기에 항공권은 여유롭게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숙사 신청입니다. 학교와 인접한 기숙사는 거리 순서대로 Carl-Zeiss-Promenade 8, Siegfried-Czapski-Straße 2, Moritz-Seebeck-Straße 15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3지망까지 작성할 수 있기에 앞서 언급한 순서 그대로 신청하였지만, Siegfried-Czapski-Straße 2로 배정받았습니다. (학교까지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1지망 기숙사로 배정받고 싶으시다면 교환학생 합격 메일을 받자마자 'studierendenwerk thüringen' 홈페이지를 통해 기숙사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숙사 신청서 제출 후 며칠 뒤에 확인용 메일이 오기에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팸 메일함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이메일 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야만 최종적으로 기숙사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기간 내에 클릭하지 않으신다면 기숙사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후 파견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https://www.eah-jena.de>' 홈페이지의 Home > Study > International Students & Applicants > Exchange Study > Application for exchange study 탭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도 제출하였고, 국제교류원을 통해 국제우편으로도

발송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많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항공권은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인천 - 프랑크푸르트 직행 항공권을 왕복 70만 원 대에 구매하였으며, 학생들을 학교 이메일 인증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공권에는 위탁 수하물 23kg 2개, 기내 수하물 8kg 1개가 포함되어 있기에 추천합니다. 대신 루프트한자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생각보다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꼼꼼히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비자의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예나 외국인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어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약을 잡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비자 테어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또한, 기숙사 신청과 함께 미리미리 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테어민을 잡지 못해 무비자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극적으로 테어민 취소표를 잡는데 성공하여 맘 편히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기까지도 약 4주에서 길면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국 날짜를 고려해서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쉥겐 조약(셥겐 조약) 덕에 무비자로 3개월간 독일에 거주할 수 있으니(타국 여행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굳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독일에서 비자 발급받기 위한 테어민도 미리 잡으셔야 합니다. (<https://service.jena.de/de/online-termin>, 이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생각보다 테어민이 빨리 사라지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학기 시작 전, 'learning agreement'를 작성하여 파견교 측으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2페이지에 언급한 홈페이지의 Home > Study > International Students & Applicants > Exchange Study > Course in English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의 경우, 학교 측에서 자신의 set number를 알려주는데 메일로 안내받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set number가 적혀있는 탭으로 들어가면 최종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종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출석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1년간 여러 수업을 들어본 결과 출석 체크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두 개 과목의 수업 시간이 겹쳐 출석을 띄엄띄엄했지만, 시험은 잘 쳤기에 두 과목 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업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험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강 신청을 하면 당연히 시험을 치고 성적을 받지만, 독일의 경우,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받지 못합니다. 시험 신청을 하는 기간이 되면 파견교 측에서 메일로 알려주거나,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시기도 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예나(Jena)는 튀링겐주에서 에어푸르트(erfurt)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물론 독일 전체에서 보면 소도시이지만, 구미처럼 있을 건 다 있어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EAH Jena 캠퍼스에서 10번, 11번, 12번 버스를 타면 Jena Zentrum 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곳이 예나의 중심부 같은 곳입니다. Aldi, Lidl, Rewe, Tegut 등 다양한 마트들이 있고, 'Goethe Galerie'라는 커다란 쇼핑몰도 있습니다. 기차역도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Jena West 역과 Jena Paradise 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독일의 기차나 버스, 트램 시간표는 'DB Navigator'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4월에도 꽤 추웠습니다. 눈이 오기도 했지만, 5월이 되니 날씨가 확연히 따뜻해졌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엔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신기한 건 비가 와도 독일 사람들을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독일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겨울학기가 1학기입니다. 그렇기에 수업을 역학기처럼 들어야 했습니다. 1학기(한국 기준)에는 Scientific Computing, Materials for Sensors and Electronics, German as Foreign Language 2(A1.2), Soft Skills까지 하여 총 4과목(전공 2과목, 교양 2과목)을 들었습니다. Scientific Computing은 수학 문제를 푸는 과목이고 교수님께서 작년 시험 문제와 답지를 올려주셨기에 문제 풀이 방식만 안다면 정말 정말 쉬운 과목입니다. Materials for Sensors and Electronics의 경우,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와 Ferroelectrics and Dielectrics라는 세부 과목으로 나뉘었으며 교수님 두 분이 각각 가르치셨습니다. 세부 과목 안에도 PL(일반 시험)과 Pra(실험 및 보고서)로 나뉩니다. 실험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 번이라도 빠질 경우, fail로 처리되기 때문에 성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온라인 실험을 한번 빠졌지만, 교수님께 다른 수업과 겹쳐서 못 들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니 이해해주시며 녹화본 보는 걸로 인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PL의 경우, 세부 과목 두 가지를 한 번에 치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쳐도 어려웠습니다. Pra의 경우는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에서 보고서 1개, Ferroelectrics and Dielectrics에서 보고서 2개, 총 3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고서 작성할 때 실험값을 이용하여 또 다른 값을 구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워서(교수님께서 식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음) 외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여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덕분에 장학금 조건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1학기에는 German as Foreign Language 2(A1.2)라는 독일어 과목을 비대면으로 들었습니다. 실시간 강의였으며, 캠은 켜지 않지만, 마이크는 필수로 켜줍니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독일어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Soft Skills는 정말 처음 보는 수업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였지만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2학기에는 Microsystems Engineering, Electronic Hardware System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 German as Foreign Language 1, Technical English까지 하여, 총 5과목(전공 2과목, 교양 3과목)을 들었습니다. Microsystems Engineering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Question Sheet를 올려주셨으며,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왔던 것 같습니다. Electronic Hardware Systems도 PL과 Pra로 나뉘었습니다. Pra 시험은 문제를 보고 브레드보드에 회로도 옮기기 및 아두이노 코딩을 같이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외국인 석사생들도 다 fail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PL과 Pra 중 하나라도 fail을 받으면 시험 성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PL 시험도 치지 않았습니다.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은 정말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친절하시며, 수업 진행을 잘해주십니다. 간혹 팀을 나눠 팀 활동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시험은 듣기+쓰기 시험, 말하기 시험이 있었으며 쉬웠습니다. 2학기의 German as Foreign Language 1(A1.1)은 대면 수업이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3시간 내도록 독일어만 듣고 있으니 기가 빠리긴 했지만 재밌습니다. 시험도 공부만 하신다면 쉽습니다. Technical English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에 English Course List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로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싶다고 메일로 연락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독일인 친구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독일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은 쉬웠습니다.

1학기 전공과목은 장학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가 쉬웠다고 느꼈지만, 2학기에는 전공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서 다 fail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조건을 맞추실 분은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수님이나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에게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예 접점이 없는 모르는 친구에게 철판 깔고 이메일 혹은 whatsapp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입사 전, 보증금(300유로)과 첫 달 기숙사비, 린넨 패키지(베개, 베개 커버, 침대 커버, 이불을 포함하여 총 35유로) 비용을 다 포함하여 약 540유로를 송금했습니다. 그 후 1학기에는 기숙사비가 약 224유로 정도였으나, 2학기에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기숙사비 또한 259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자신이 최대치 지출 가능한 금액을 작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비슷한 금액을 이체할 것입니다. 보증금에 관해서, 기숙사 퇴실할 때 hausmeister분이 오셔서 전체적인 기숙사의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이는 pre-check와 final-check로 나뉘는데, final-check때 pre-check에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일에는 '방송수신료'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독일 방송을 보지 않아도, 독일에 거주하면 필수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룸메이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낸 후에 그 친구에게 N분의 1 한 값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생활비 관련입니다. 저는 '슈페어konto'를 이용하였습니다. 슈페어konto란 blocked account로 독일에 거주하는 개월 수 동안의 생활비를 미리 계좌에 예치해두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2022년 기준, 861유로) 제 계좌로 입금해주는 독일의 재정증명 방법입니다. 이 돈에서 기숙사비, 보험료를 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는 여행 경비가 모자라서 '모인'이라는 앱을 통해 돈을 더 송금하여 생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슈페어konto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바뀌었으니 꼭 찾아보신 후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의 경우, 'expatrio'라는 홈페이지에서 슈페어konto와 함께 신청했으며 저는 'TK'라는 보험사를 사용했습니다. 2022-1학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08유로였으나, 2학기부터는 117.5유로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가 그냥 나가는 게 아까웠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싼 가다실이라는 주사를 맞고 환급받았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 학기가 시작되기 전, 약 2주간 'culture program'을 진행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어도 미리 배웁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했던 다른 친구는 파견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tutor program'도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의 국제교류도우미와 비슷한 개념으로 EAH Jena의 international office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튜터를 배정해줍니다. 각종 행정 처리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거주지 등록(anmeldung)을 튜터가 도와주어 수월하게 끝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Stammtisch'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독일식 친목 행사입니다. 다양한 Stammtisch가 존재했는데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International Stammtisch가 있습니다. 이는 international office에서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cafe immergrün'에서 진행되는 Koreanisch Stammisch도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따로 만나기도 하고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unisport라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학과 2학기 모두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영어로 진행되는 운동 프로그램들도 꽤 있기에 홈페이지에 (<https://www.hochschulsport.uni-jena.de/>) 들어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Soft Skills 수업을 들을 당시, 교수님께서 campusfest에서 한국 대표로 부스를 운영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부스 운영 주제는 길거리 음식이었고, 저와 제 친구들은 소떡소떡을 만들어서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비건용 소떡소떡을 포함하여 총 100개가 넘는 꼬치를 만들었고, 꽤 빨리 만들어둔 모든 소떡소떡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결제할 때, 손님이 카운터로 직접 가서 결제하는 경우보다 가만히 앉아있으면(혹은 직원을 호출하면) 직원분이 직접 카드 리더기 또는 현금 가방을 들고 오셔서 결제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물론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유럽 식당 중 90%는 이러한 시스템이었으니, 결제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입니다. 또한, 아직도 유럽 국가는 현금 사용률이 높습니다.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주변 atm에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생활할 당시에 N26과 VIVID라는 은행사의 카드를 이용했는데, 한국에서 '하나 비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튀링겐주 안에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때는 표를 따로 끊을 필요 없이 toska(학생증)를 이용하여 버스, 트램, 지역 기차 등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 검사할 때 toska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기에 독일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erfurt가 포함되어 있으면, DB 앱에서 출발지를 erfurt로 설정하면 jena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교통비가 저렴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isic 국제학생증 앱을 통해 FlixBus 앱에서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여행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독일의 기차는 지연 및 취소가 일상입니다. 취소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기차 시간표를 검색하여 그것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또한, 지연으로 인해 환승 기차를 놓쳤을 때도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연과 취소가 잦기 때문에, 기차로 인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서 표를 예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PAYBACK 앱 사용을 추천합니다. 저는 1학기에는 이용하지 않다가 2학기부터 이용했는데 약 30유로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DM과 Rewe에서 PAYBACK 포인트를 적립하였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독일어 또한 간단한 문장은 구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외국의 수업 방식이 한국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느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수님께 질문하는 횟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강의실의 규모가 커 교수님과 학생들의 거리가 멀더라도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하며 소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저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행을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남녀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춤을 추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며,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 보이는 그들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이후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남들 시선을 생각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간혹 존재하기도 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따뜻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기에 후회 없는 1년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로 여행 가기도 좋았습니다. 1년 동안 독일 내 여행뿐만 아니라, 주변의 1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시하면 일단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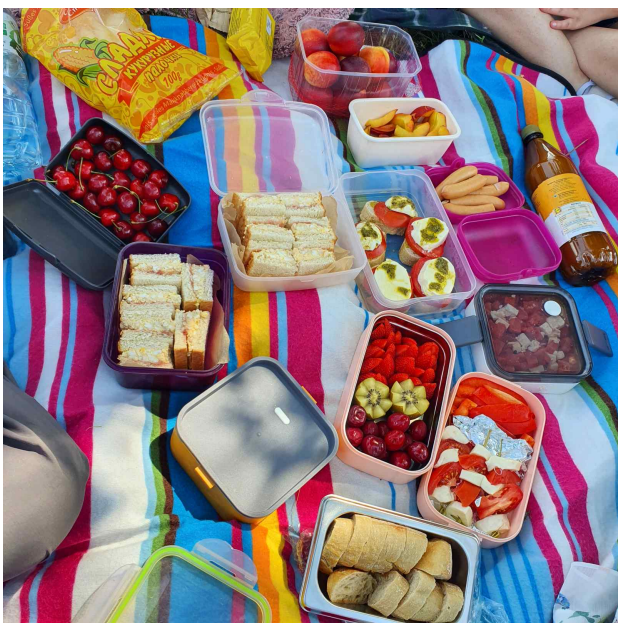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독일 생활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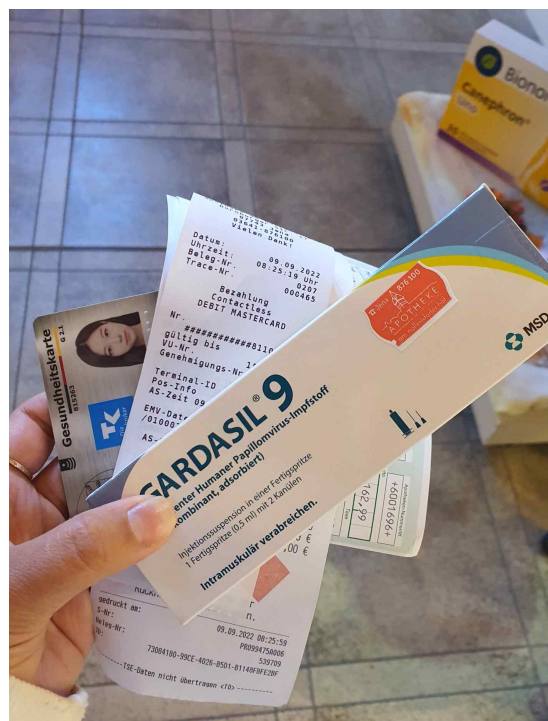
<https://www.otz.de/regionen/jena/campus-fest-der-ernst-abbe-hochschule-gekroent-mit-grossem-e-symbol-id235695683.html> (지역 신문에 실린 Campusfest 기사 링크)



학생 식당 Mensa에서 먹는 음식



Stammtisch에서 만난 친구들과 피크닉



가다실 맞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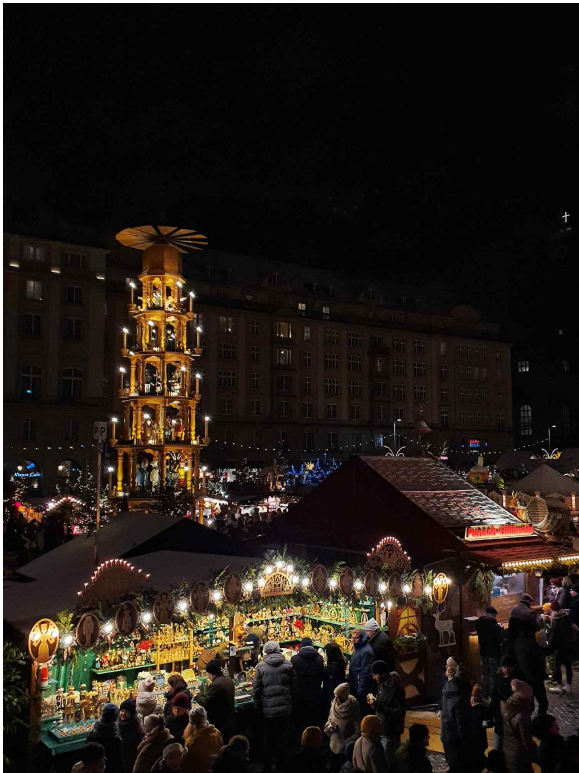
소떡소떡 만들기 & Campusfest



flatmate들과 저녁 식사

Dhaarna가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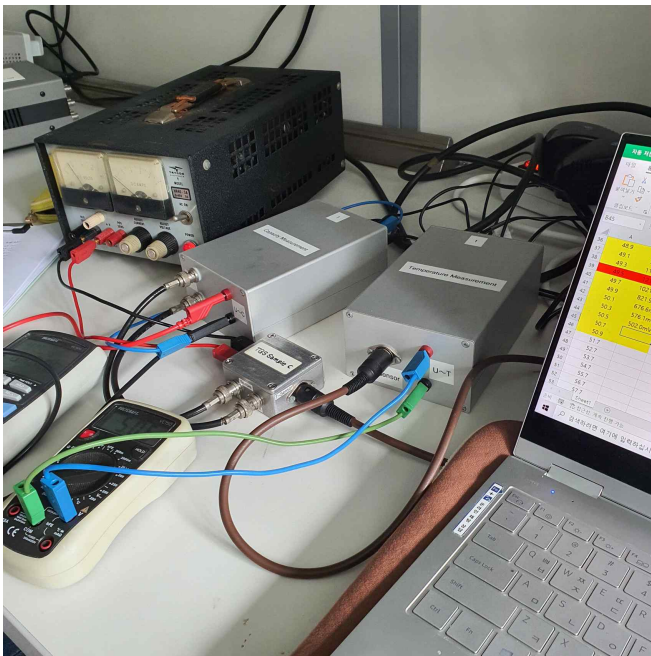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



실험



Tim이 만들어준 Milchreis



여행 중 모았던 마그넷